

약탈감금

【캐릭터】

· 타카츠키 스구루 28세

엄격한 아버지와 우수한 형이 있다.

양쪽 모두 감금벽이 있는 안테레이며, 타카츠키 스구루는 애착이 가는 것에 대한 「우리 가족의 머리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 운명의 사람과 「평범하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이라 정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첫눈에 반한 히로인에게 연인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린다.

약간 신경질적인 면이 있어서 패닉에 빠지기 쉽다.

· 카나야마 아키라 22세

들러리. 히로인의 연인. 날라리.

지극히 평범하게 히로인과 사귀고 있었지만, 그것이 타카츠키 스구루의 원한을 사 살해당하게 되고 만다.

가시망(배려 없이 격렬하게 여성기에 핑거링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

줄거리 트랙(あらすじ)

타카츠키 스구루는 지극히 성실한 남자다. 매일같이 일을 착실하게 해내고, 경박스러운 소문도 없으며, 여자를 데리고 노는 짓도, 도박도 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근면하고 유능한 남자는 좀처럼 없으며, 누구나 입을 모아 이야기하겠지.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심히 회의적이었다. 사람을 상처입히는 것만 같은 사랑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래. 당신과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첫눈에 반한 타카츠키 스구루는 평소 행실이 바르지 않은 남자와 교제하고 있는 당신에게 마음 깊이 성의를 보였다. 당신의 연인이 얼마나 저속한가와, 자신이 얼마나 당신에게 어울리는지를 정성을 다하여 말하고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당신의 책임인 거다.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당신에 대해, 타카츠키 스구루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어느새 광기밖에 남지 않았다.

타카츠키 스구루는 알고 있다. 당신을 데려와서, 가두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바친다 해도,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신을 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어. 미안해, 나의 운명의 사람.

트랙 1

수일 전 히로인에게 첫눈에 반한 스구루.

길가에서 고백을 해보지만, 히로인에게는 이미 연인이 있음이 판명 난다.

스구루는 노골적으로 충격을 받고, 반쯤 망연자실한 상태로 물러난다.

【술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밤거리를 걷는 히로인과 카나야마】

SE: 혼잡

SE: 두 사람들의 발소리

【3 추정꾼, 기분이 좋음】

카나야마: 아아, 하하. 흔들흔들거린다. 좀 과음해버렸네.

【히로인 「조금만 더 조절해서 마셔」】

카나야마: 뭐야? 설교? 간 만에 좋은 기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잖아. 선배가 “마셔”, 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는 거잖아? 아, 조금 기분 나빠졌어. 어이, 저기 편의점에서 술 깎 만한 것 좀 사 와줘.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SE: 마지못해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소리

SE: 자동문 개폐

SE: 옆에서 스구루가 걸어온다

【1 1 몇 걸음 떨어져 긴장의 기미】

스구루: ……저기, 안녕하세요.

【히로인, 스구루를 돌아본다】

스구루: 죄송해요, 갑자기 말을 걸어서…… 저는 타카츠키 스구루라고 합니다. 저기…… 아, 맞다. 이거 명함.

SE: 품 안을 부스럭거린다

SE: 명함 케이스를 연다

SE: 명함을 내민다

【유명한 대기업의 명함에, 조금 놀라는 히로인】

스구루: 예? 아, 이 회사 알아? 【안심하고】 다행이다. 이름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메리트 오늘 처음 느꼈을지도. 지금의 나 엄청나게 수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여 있는 회사에 연락해보면 내 신원은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

【히로인 「그 대기업 사원께서, 무슨 용무이신가요?」】

스구루: 아, 용무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대화를 해보고 싶어서. 【어색한 듯이】 미안. 갑자기 의미를 모르겠지?

스구루: 【심호흡】 저기, 실은 나. 저번 주에 당신이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만나고 싶어서…… 이 편의점에서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어서 곤란할지도 모르겠지만 우선은 친구로…

SE: 편의점 문 개폐

SE: 카나야마가 다가오는 발걸음

【카나야마, 히로인에게 불평하려고 편의점에 왔으나, 모르는 남자와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다】

【10 불쾌함→ 의아】

카나야마: 있잖아~…… 술 깬 만한 거 좀 사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것보다 밖 엄청 더운데. 【불쾌하다는 식으로】 내가 사러 올 걸 그랬어…… 응? 뭐야? 무슨 일이야? 들러붙은 거야?

【1】

스구루: 【의아하다는 듯이】 ……너는?

카나야마: 나? 남친인데.

【3 히로인의 바로 옆에 선다】

카나야마: 【통명스럽게】 너야말로 뭐야? 【바보 취급하며】 설마, 작업 거는 거? 편의점에서? 좀 장소를 생각하라고?

【1 충격】

스구루: ……연인이, 있던 건가……

【히로인 「죄송합니다」】

스구루: 아, 사과하지 말아줘……! 나야말로 미안해. 곤란하게 만들었지? 당신 같은 멋진 사람이라면 연인이 있는 게 당연하지. 바보네, 나…… 들떠서…… 그런 당연한걸……

【3】

카나야마: 【히로인의 팔짱을 끼고】 어이, 가자고.

SE: 두 사람들의 발소리

SE: 편의점 문 개폐

【3 같이 걸어 나가며】

카나야마: ……아~, 놀랐다. 설마 내가 없는 일순에 작업을 당하다니. 그것도 그런 미남에게. 술 깬 만한 건 사지 못했지만, 한방에 취기가 날아갔어. 좋은 수트 입고 있었지… 키도 컸었고. 【두근두근】 아, 명함 받았었지? 보여줘 봐!

【히로인, 명함을 보여주고, 카나야마를 본다】

SE: 명함 전달

【1】

카나야마: 우와, 대기업이잖아. 미남에, 고신장에, 부자라니, 너무 잘났다. (웃음) 너 같은 거에게 아깝다니까. (웃음)

【히로인 「너무해!」】

카나야마: 화내지 마. 농담이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까고 말해서, 아주 마음에 없던 것도 아닌 거 아냐?

【히로인 「바보 취급하는 거야?」】

카나야마: 농담이야. 농담. 너는 나 하나만 바라보니까 말이야? 아, 몸가짐이 올곧은 여자친구가 있다니, 나란 사람은 행복하네. (웃음) 【이마에 키스】

【히로인 「밖에서는 하지 마」】

카나야마: 괜찮잖아. 제대로 내 여자친구입니다. 라고 어필해주지 않으면 또 누군가에게 고백받을지도 모르고…… 【달달한 느낌으로】 있지, 당분간 밤은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런 좋은 남자가 갑자기 작업을 걸어오다니…… 어떻게 생각해봐도 무언가 사기일 거야. 무심코 단둘이 된다거나 하면, 휩쓸려서 내장을 빼앗긴다거나……

【진지하게】

카나야마: 이건 진심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반드시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나를 의지해주는 거다? 【다시 이마에 키스】

SE: 두 사람의 발소리

트랙 2

밤, 히로인이 혼자 가게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 자리에 스구루가 앉는다. 「하?」라고 생각한 히로인에게, 스구루는 「그 남자는 그만두는 게 좋아」라고 진지하게 설득을 시작하지만, 히로인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스구루는 히로인 납치를 단행한다. 가게의 고객도 주인도 전원 스구루에게 고용되어있는 사악한 플래시몹.

SE: 가게의 BGM

SE: 약자지껄

SE: 식기가 달그락거린다

SE: 16의 저편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16】

스구루: 안녕, 잠깐 합석해도 괜찮을까?

【히로인, 흠칫 놀라지만 스구루는 그대로 앉는다】

SE: 의자 소리

SE: 앉는다

【1】

스구루: 아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먹도록 해. 이 가게, 내가 좋아하는 곳이지. 어, 저기…… 기억하고 있어? 있잖아, 저번에 편의점에서 명함을 건넨 “수상한 남자”. 맞아, 타카츠키 스구루입니다.

【히로인 「사기라면 충분합니다」】

스구루: 예? 사기? 라니…… 무슨 이야기? 내가 너를 사기에 걸려들게 할 거라는 거야……?

【1】

스구루: 아하하하하!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거, 네 남자친구에게 들은 거야? 내가 너를 사기에 걸려들게 만들려는 거라고? 그런 말 할 것 같네, 그 남자. 【여기만 낮게】 정말, 구제할 수가 없네…… 이전에 말한 대로야. 너에게 한눈에 반해서, 대화가 하고 싶어. 그뿐이야.

【히로인 「타카츠키 그룹의 상속자라며」】

스구루: 응? 아아…… 나에 대해, 인터넷이나 그런 걸로 알아본 거구나. 그래. 일단, 그 타카츠키 그룹의 일족. 뭐, 나는 차남이라 형의 서포트 역이라고나 할까, 형이 죽었을 때 쓸 스페어지만.

【히로인 「그런 사람이, 어쩌서 나에게?」】

스구루: 응? 그렇네…… 나도 꽤 고민했거든.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된 이유. 어떻게서든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더라.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쩔 도리도 없이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 계속 네 모습을 보고 싶어지고, 계속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밉다고 생각하게 됐어. 핑계가 아니고. 저주 같은 운명에 사로잡혀서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없어?

【히로인 「잘 모르겠어」】

스구루: 【쓴웃음】 모르나…… 그런가. 【한점 밝게】 그렇겠지, 나도 몰랐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 운명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환상이라고 생각했거든.

【1】

스구루: 그런데 지금 날마다, 매일 밤, 너에 대한 것만 생각하게 되었을 정도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구루는 카나야마의 신변 조사 결과, 히로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데다가, 해까지 끼치고 있는 존재라고 판단한 끝에, 범죄조직으로부터 히로인을 구해낼 정도의 진지함으로 임한다. 히로인의 “세뇌”가 풀리지 않는다면 실력행사까지도 불사할 거라고.】

스구루: 네 남자친구인, 카나야마 아키라 말인데…… 【힘오를 드러내고】 어찌할 수도 없는 쓰레기 자식이야. 너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고, 너의 상냥함을 파고들어서, 마치 어머니에게 응석을 부리는 꼬맹이 같아. 그 남자로부터, 너에게 접근해온 거지? 그렇지만 그 녀석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귀엽고, 상냥하고, 다루기 쉬운 것 같으니까 너를 노린 거야. 데리고 다니면서 주변 무리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히로인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스구루: 너는 속고 있는 거야……! 있지, 잘 생각해봐. 이대로 그 남자와 함께 있어서 너는 정말 행복할까? 행복하게 될까? 그 녀석은 너보다 형편이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간단하게 그쪽으로 갈아탈 거야. 생명에 위협이 드리워지면 너를 희생해서 살아남으려고 할 거라고. 이전에만 해도……!

【히로인, 기세 좋게 의자에서 일어선다】

SE: 의자 랑!

스구루: 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일어서고……

SE: 히로인이 떠나가는 발소리

【스구루, 히로인이 화가 나서 떠나가려고 하기에, 당황해서 뒤쫓아 간다】

【12 히로인을 쫓아가면서】

스구루: 아, 기다려…! 있지, 말을 끝까지 들어줘. 나는 너를 구하고 싶을 뿐이란 말이야. 부탁할게……! 참을 수가 없어, 네가 그런 쓰레기의 연인 취급을 받는 게……!

SE: 발걸음을 멈춘다

SE: 계산대 점원을 부르는 벨을 울린다

【계산대 점원을 부르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초조해하는 히로인. 그러나 스구루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은 초조해하지 않는다】

【4】

스구루: 어째서 무시하는 거야? 【달래듯이】 자리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자. 봐, 스태프도 바빠서, 지금은 카운터 대응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가게를 바꿀까? 좀 더 조용하고 차분한 바가 있어. 드레스코드가 있긴 하지만…… 가는 도중에 너에게 어울리는 옷을 사주도록 할게.

SE: 벨을 엄청나게 울린다 (몇 번 울린 뒤에 멈춰 주세요)

스구루: 곤란하네…… 있지, 모르겠어? 자, 잘 봐. 가게의 스태프들도, 고객들도…… 모두 너를 보지 않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3 배후로부터】

스구루: 【비밀 이야기를 하듯이】 너는 지금 이 가게에서는 투명인간인 거야. 이 가게, 실은 1년 전부터 내가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보안카메라도 꺼 댄어. 평범하게 있는 고객들도, 오늘은 전원 내 부하야.

【히로인, 두려워하면서 뒤를 돌아본다】

SE: 옷이 스치는 소리

[1 부드럽게 설득하는 톤]

스구루: 이걸로, 조금 알아주겠어?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있지, 말해봐.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네가 원하는 걸,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말해준다면 그걸 준비해줄게.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장 데려다줄게. 싫어하는 놈이 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제거해버리는 것도 가능해.

【1→ 7 컷가에서】

스구루: 그러니까…… 응?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는 그만두고, 나를 좋아해 줘.

【히로인, 스구루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스구루가 그것을 붙잡아 배후로부터 끌어안는다】

SE: 히로인이 달려나간다

SE: 스구루가 끌어안는다

【5→ 4】

스구루: 앓, 기다려! 안돼!

SE: 날뛰는 히로인

스구루: 진정해, 날뛰지 말아줘! 착하지……!

【히로인 「경찰을 부를 거예요!」】

【4】

스구루: 【히로인을 억누르며】겨, 경찰? 【당황】어째서 그런 걸 부르려고 하는 걸까……! 나는 그저, 너를 쓰레기 자식으로부터 구해주려는 것뿐이잖아? 너에게 최고의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이런…… 범죄자처럼 보는 듯한 화법……!

【히로인,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스구루: 【상처받고】하?

SE: 히로인을 이쪽을 향하게 한다

SE: 벽으로 밀어붙인다

【스구루, 뒤에서 껴안고 있던 히로인의 몸을 이쪽으로 돌려, 벽에 밀어붙인다】

【1】

스구루: 【당황】어째서 지금 그런 쓰레기 남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 녀석에게 구해달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나로부터? 어째서 그런…… 【점점 열받아서】나보다 그런 남자를 고를 거라는 말하는 거야? 나보다 그런 녀석이 위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알잖아!

【1】

스구루: 자, 잘 보고, 생각해봐. 나랑 그 녀석을 비교해보도록 해보도록 해봐. 나랑 비교해서, 그 새끼가 나은 점이 어디에 있어? 설마, 몸의 상성? 내 정열이 부족해? 말로는 전해지지 않아? 그렇다면 얼마든지……! **【말하면서 역지로 답키스】**

【역지로 답키스 30초 정도】

【1】

스구루: **【황홀함에 취해】** 으응…… 하아…… 있지? 자…… 키스, 기분 좋지?

【히로인 「집에 돌아가게 해줘」라며 운다】

스구루: 안돼,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이런 곳에서는 부끄럽지? 역시, 장소를 바꿀까. 너와 천천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조금 잠들어 있어 줘.

SE: 스프레이를 뿌리는 소리

SE: 히로인이 몇 걸음 비틀거린다

SE: 히로인이 쓰러진다

SE: 스구루가 껴안는다

【히로인, 수면제를 분무 받고 의식이 몽롱해진다】

【3】

스구루: 옷짜……! 후후, 귀여운 잠든 얼굴…… 미안해, 이런 짓을 해서. 그렇지만 분명 너를 설득하고 말 거니까. 드디어 만났다…… 내 운명의 사람.

트랙 3

갑자기 유괴되어, 감금실에서 눈을 뜬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히로인에게. 스구루가 말을 걸어온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준비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어줘, 응?」

다시 한번 타카츠키 스구루로부터 고백받지만, 당연히 거부.

그러나 타카츠키 스구루는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저런 남자보다 낫다는 걸 알게 해주겠어」 「네가 나를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 (?)」 라며, 정중하게 끈적끈적 레이프.

장소: 실내

시간: 불명

【타카츠키 스구루의 집 한 방에서, 눈을 뜨는 히로인】

SE: 15 스구루가 책을 넘기는 소리

SE: 히로인, 침대 위에서 몸을 움직인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스구루】

【15 잔잔하게】

스구루: 아, 일어났네, 좋은 아침.

【히로인, 동요하면서 몸을 일으켜, 스구루를 본다】

【9→ 7】

스구루: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아직 약효가 다 떨어진 건 아니니까…… 어이쿠……!」

【어지럼증으로 자세가 무너진 히로인을, 스구루가 지탱한다】

SE: 끌어안는다

【7】

스구루: 【상냥하게】 응? 어질어질하지? 조금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아. 벌써 10 시간 이상 잤으니까……

【스구루, 말을 하면서 옆 테이블로 돌아서며, 컵에 물을 따른다】

SE: 물병으로 컵에 물을 붓는다

【스구루, 히로인에게 컵을 내민다】

【1】

스구루: 자, 물이야.

【히로인 「어째서 내 방에?」】

스구루: 응? 아아, 이 방? 네 방과 똑 닮았지? 그렇지만, 미안해. 여긴 네 방이 아니야.

【히로인, 영문을 몰라 당황한다】

스구루: 아쿠아리움이라고, 알고 있지? 희귀한 열대어를 낚아와서, 그 열대어가 살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고 사육하는 거야. 수질도, 수온도, 수초도…… 전부 전부, 소중한 한 마리를 위해 마련해두는 거야. 이해가 안 됐었어, 이전까지는. 그런데, 재밌었어. 이렇게, 네 방을 우리 집에 만들던 시간은, 말이야.

【1】

스구루: 아아, 그렇지만, 꽤 다른 점도 있다고? 자, 저쪽에 소파를 봐. 【밝게】 짠, 네가 갖고 싶어 하던 인형. 인터넷 샵에서, 몇 번이고 봤었지? 인형치고는, 조금 고급이라 참고 있던 걸까? 함께 살기 시작하는 기념으로, 나로부터의 선물이야.

【히로인 「함께 산다고?」】

스구루: 아아, 그래. 너는 오늘부터 이 방에서, 나랑 함께 사는 거야. 【가볍게 웃으며】 아-아. “뭐라는 거야, 이 정신이상자.”라는 얼굴이네. 음, 뭐…… 알아. 나도 엄청 고민했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 너도, 금방 이 생활에 익숙해질 거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건, 뭐든 사줄게. 【방을 둘러보면서】 방의 내부도, 지금은 네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전에 살고 있던 방과 똑같이 해주었지 만……좀 더 공주님 같은 방이 좋다면 그렇게 할 거고.

스구루: 지금은 전혀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나에게 납치되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천진난만】 왜냐면 봐, 너, 나 같은 얼굴 좋아하잖아?

【1】

스구루: 경제력도,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요리도 잘해. 취미도 다양하니까 너와 대화도 잘 맞을 거라 생각해. 만약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보완할게.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줄게.

【히로인, 침대에서 뛰어내려 현관을 향해 달린다】

SE: 달리는 소리

SE: 절그럭 절그럭 절그럭

SE: 광광광!

【13 실망】

스구루: 아직도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엄청나게 큰 한숨 소리】 정말, 바보 같은 여자네……

SE: 히로인의 배후로 다가오는 느긋한 발소리

【13→5 걸어오면서】

스구루: 있지, 내 말 들었어? 네 방과 똑같은 구조의 방을 마련해서, 너를 납치하고, 같이 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일방적으로 말이야. 완전히 계획적이야. 그런데도--

SE: 발소리, 히로인의 바로 뒤에서 스톱

SE: 문이 절그럭거리는 소리도 스톱

【스구루, 히로인의 뒤에 서서 컷가에 속삭인다】

【6 컷가】

스구루: 방 안에서, 문이 자유롭게 열릴 리가 없잖아. 너는- 【한계까지 가까이 가서】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거야. 내가 좋다고 말할 때까지, 말이야.

【히로인,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구 날뛴다. 동생을 죽이고 도망칠 기세다】

SE: 히로인 대난동

【1 옆치락뒤치락하며】

스구루: 어이쿠……! 안 된다고, 날뛴면……! 날뛴다 해도 어떻게 변하는 건 없으니까. 자, 어른스럽게 있으라니까……!

SE: 벽에 히로인을 억누른다

SE: 날뛰는 소리는 여기까지

【히로인, 「너무해」라며 운다】

【1 근거리에서】

스구루: 너무해? 어째서? 그런 건, 이쪽이 할 말이라고! 【울듯이】 전부 잘 진행될 일이었어. 네가 이런 바보가 아니었다면 말이야! 그런 녀석이 아니라, 나를 골라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상식과 머리만 있다면! 나도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나 할 짓 안 해도 됐다고!

SE: 히로인의 얼굴 옆에 있는 문을 때린다

【히로인, 폭력의 기미에 겁을 먹고 경직된다】

【1 조금 떨어져서】

스구루: 【퍼뜩 정신이 들어서】 미안…… 무서웠지? 그런데, 이제,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 너를 좋아하게 된 이후부터, 내 안의 내가 점점 부서져.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았어. 나만은 제대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로, 결심했었는데…… 하하, 의미를 모르겠지? 너에게는, 그저 스토커의 헛소리일 테고……

【1→ 3】

스구루: 괜찮아, 아픈 건 절대로 안 할 거야. 얼마간 네 생활을 지켜봤으니까,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대체로 알아. 쾌적한 생활을 약속할게. 앞으로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전부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스구루, 히로인의 귀에 키스한다】

【3 귀를 핥거나, 깨물거나 하면서】

스구루: 있지…… 제대로, 연인이 되자. 이렇게, 귀를, 핥아지는 거…… 좋아하잖아?

【히로인, 범해질 것을 짐작하고 울음을 터트린다】

【상냥하게 달래듯이】

스구루: 울지마,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앞으로 매일 밤 할 일의, 처음 1회가 오늘일 뿐이야.

【스구루, 히로인의 귀에 키스하면서 히로인의 가슴을 만진다】

스구루: ……후후, 가슴이 부드럽네. 너에게 첫눈에 반하고 난 뒤로부터, 계속 상상했었어. 네 피부는 어떤 촉감이고, 어떤 맛이 나고, 사랑을 나눌 때는, 어떤 소리를 들려줄까, 같은 거……

【귀에 길게 키스】

스구루: 젓꼭지, 점점 단단해진다…… 기분 좋아? 나도♡ 너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뇌가 녹아버릴 정도로 기뻐. 아아, 정말 기분 좋아. 너는 어때? 기분 좋지?

【1】

스구루: 그렇지 않아? 정말? 【짓궂게】 에-? 그럼, 확인해볼까? 자, 치맛자락을 입에 물고 있어.

【스구루, 치맛자락을 히로인의 입에 물리고, 속옷 위로 한 손을 사용해 히로인의 음부를 만진다】

SE: 치마를 걷어 올리는 효과음

SE: 만지면서 나는 물소리

스구루: 【기쁜 듯이】 하하, 젖었어♪ 속옷 위인데도, 봐…… 질척질척해서……♡ 역시, 기분 좋았던 거구나. 아아, 부끄러워하지 말아줘. 기쁘니까.

【입술에 가벼운 키스를 반복하며】

스구루: 네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했어. 어떻게 하면, 여자가 기분 좋게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거나 하지 않을 거야. 자, 젖어 든 속옷 위로부터 이렇게, 쓰다듬는 것만으로……

SE: 천천히 물소리가 끈적끈적하게 들린다

스구루: 그치? 기분 좋아?

【느끼기 시작하는 히로인의 모습에, 기분이 좋아진 스구루】

【7 속삭이듯】

스구루: 목소리, 참지 않아도 되는데. 이웃 같은 거 없으니까, 사양하지 마. 하
앗…… 너의 여기, 조금 커졌네♡

스구루: 이 정도 세기로 만져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좋아. 네가 좋아하는 대로,
잔뜩 만져줄게. 네 귀여운 목소리, 들려주지 않을래? 【귀에 키스】

스구루: 자, 부끄러워하지 마.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라며 허리 움직이고 있네.
응-? 천 위로는, 조금 자극이 부족한가? 그럼 봐, 손톱으로 부드럽게 긁어주도록
할게♡ 자, 감작잠작……

【히로인, 절정 해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다】

SE: 옷이 스치는 소리

SE: 쓰러진다

【1 위에서】

스구루: 아하하. 기분 좋아서, 허리에 힘이 빠져버렸어? 귀여워~ (웃음)

【스구루, 지쳐 주저앉은 히로인을 공주님 안기로 침대에 옮긴다】

【2】

스구루: 자, 이리 와. 다음은 침대에서…… 하자♡

SE: 히로인을 안아 올린다

SE: 침대로 이동

SE: 히로인을 침대에 눕힌다

SE: 스구루가 침대에 오르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

【히로인과 스구루, 침대 위에서 마주 본다】

【1】

스구루: 옷, 벗길게.

SE: 벗기면서 나는 옷 스치는 소리

스구루: 아아…… 아름답다. 네 몸은, 여기도 저기도 모두, 엄청…… 그런데--

【스구루, 히로인의 몸에 카나야마가 새긴 키스마크를 발견하고, 초조해하면서 히로인의 몸을 구석구석 체크한다】

【1의 위치에서 히로인의 위치를 여기저기 바라보며】

스구루: 그 녀석이 새겨둔 자국이 있네…… 눈치 못 채고 있었어? 전부, 내가 덧 씌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네…… 너는 이제, 나의 연인이니까. 우선은, 목뒤.

【5 스구루, 목뒤에 키스마크를 새기는 소리】

【1 아래에서】

스구루: 다음은 여기. 허벅지 안쪽. --자, 위로 향하게, 다리를 들어. 내가 키스하기 쉽도록.

【스구루, 허벅지 안쪽에 키스마크를 새기는 소리】

스구루: 아-아, 이런데도 있어. 알고 있었어? 여기…… 무릎 뒤쪽.

【스구루, 무릎 뒤쪽에 키스마크를 새기는 소리】

【일련의 흐름으로, 히로인은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스구루에게 한쪽 다리를 끌어안게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1】

스구루: 응, 이걸로 됐어. 자, 계속…… 할까? 네 여기도,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것 같고……

SE: 만지면서 나는 물소리

스구루: 당장이라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미끌거리네. 알겠어? 봐, 안쪽도……

SE: 손가락 삽입

스구루: 【기쁜 듯이】 점점 넘쳐흐르고 있어. 내 손가락, 그렇게도 기분 좋았구나. 아니면 키스 쪽인가? 기쁘다…… 네가 나로 느껴준다니, 엄청 기뻐. 그래도 아직 조금 좁은 것 같으니까 좀 더 길들일게.

SE: 핑거링 (저속→중속)

【히로인, 처음 느끼는 쾌락에 당황한다】

스구루: 응? 왜 그래? 기분 좋은 게 신기해? 그렇네, 네 남자친구는, 아파하는 건지 느끼는 건지, 구별할 줄 모를 것 같은 남자였지. 섹스라는 거, 사실은 기분 좋은 거야. 내가 전부 알려줄게.

SE: 핑거링 가속

스구루: 좋네, 이대로 가버려. 봐, 내 손가락으로, 마음껏 기분 좋아지도록 해.

【히로인 절정】

SE: 핑거링 종료

SE: 손가락을 빼낸다

【3 컷가에 부드럽게】

스구루: 옳지 옳지, 훌륭하게 갔네. 그렇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좀 더 좀 더 기분 좋게 만들어줄게.

스구루: 자아, 다리를 벌려. 그 녀석보다 크니까, 버거울지도 모르지만. 제대로 기분 좋아지도록, 힘낼 테니…… 까! 【삽입】

SE: 삽입

【1】

스구루: 하핫, 엄청나게... 질척질척..... 또 조금 가버린 건가? 짹짹 조여들어 서..... 기분 좋아..... 있지? 제대로 기분 좋게 되어서, 잔뜩 젖어 들면, 안쪽까지 단번에 삽입해도 아프지 않지?

SE: 피스톤 (저속)

스구루: 좋은 목소리, 좀 더 들려줘. 서서히 당하는 것도 좋아하는구나? 좋아, 그럼 그렇게 해줄게. 그 녀석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잔-뜩 찢러 넣어줄 테니까.

스구루: 하핫, 그렇게 좋아? 허리, 움직이고 있어.

SE: 피스톤 중속

스구루: 어때? 기분 좋지? 전 남자친구보다, 훨씬, 훨-씬.

【히로인, 부정한다】

【1→3 꺾가에】

스구루: 헤에? 부정하는구나. 이렇게 젖어있는데도? 아까 두 번이나 갔는데도?

스구루: 이걸로는 부족한 거야.....? 그렇다면, 억지로 당하는 게 좋아? 그 녀석, 난폭하게 섹스했었지?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좋아. 바솔이든 수갑이든 사서, 너를 단단히 구속한 뒤에, 그저 구멍인 것처럼 다뤄줄게. 그런 식으로 하기를 바라?

【히로인, 공포로 굳는다】

【1】

스구루: 【쓴웃음】 그렇게 겁에 질린 얼굴, 하지 말아 줘. 네가 싫다고 하면, 그런 짓 안 해. 나는 사디스트도 똥도 아니니까. 봐, 지금도 아픈 건 안 하고 있잖아? 그저, 잔뜩 기분 좋게 만들 뿐..... 봐, 이렇게..... 해서..... 응? 안쪽을, 쿵, 쿵, 쿵..... 하고. 하아..... 하아..... 아아, 기분 좋아..... 허리, 멈출 수가 없어.....! 미안해. 조금 격렬하게 할게.....

SE: 피스톤 고속

스구루: 하하..... 엄청난 소리. 격렬하게 당하는 거, 기분 좋아? 착하다, 착해. 납치당해서 억지로 범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문란해지다니. 천성이 음란하네. (웃음)

【1】

스구루: 그렇지만, 이 정도로 야한 편이 좋아. 나는 앞으로도 평생, 너를 놓아주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억지로 범해져도 기분 좋게 되는 편이, 너로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스구루: ……응, 슬슬 갈 것 같아? 그럼, 키스하면서, 함께 가자♡ 자, 혀 내밀어. 응, 으음……

【스구루, 호흡을 잠시. 초수는 말기겠습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은 타이밍에 다음 대사를】

스구루: 아아…… 안쪽, 조여든다…… 앓. 갈 것 같아? 갈 것 같아? 나도야…… 이제 위험…… 아, 아앗…… 【히로인과 동시에 절정】

SE: 피스톤 종료

스구루: 【한숨】……있지, 동시에 갔네. 하하, 꿈만 같아. 너와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니…… 아아, 지쳤어? 그렇네, 일어나자마자 무리를 시켜서 미안해.

SE: 빼는 물소리

【3 컷가에】

스구루: 오늘은, 이걸로 끝낼까. 오늘부터 매일, 몇 번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잘 자. 또 봐요.

SE: 멀어지는 발소리

SE: 문 개폐

SE: 전자 잠금장치를 거는 소리

트랙 4

납치된 다음 날, 몸을 함락시켜도 전혀 마음을 열지 않는 히로인. 하지만 대화의 흐름으로 카나야마도 같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카나야마의 목숨을 구걸하는 히로인에게, 스구루는 「제대로 조른다면 카나야마와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말을 꺼낸다.

SE: 문 너머에서 발소리

SE: 전자 잠금장치를 여는 소리

SE: 문 개폐

【스구루, 카나야마를 고문한 직후의 피로를 끌고 히로인의 방에 찾아온다. 히로인은 침대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은 채 훌쩍훌쩍 울고 있다】

【9】

스구루: 다녀왔어.

【잠금장치를 잠그기 위해 뒤를 돌아본다】

스구루: 어때? 조금은 넉넉히 쉬고 있었어?

SE : 전자 잠금장치를 닫는 소리

【잠금장치를 잠그고, 히로인에게 돌아서는 스구루】

SE: 다가오는 발소리

스구루: 이쪽은 조금 정신이 없어서 말이야. 늦게 돌아와서 미안해. 일단, 저녁 식사는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둘 생각인데--

【히로인이 울고 있는 것을 깨닫고, 발걸음을 멈추는 스구루】

스구루: 뭐야, 아직 울고 있는 거야? 【자조】 뭐, 당연한 일인가……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 좋아, 괜찮아. 네가 받아들여 줄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까.

【히로인 「여기서 내보내 줘, 부탁할게」】

【9】

스구루: 하……? 【실소】 정말……너는 이해력이 나쁘구나. 부탁을 들은 정도로 너를 여기서 내보낼 만한 남자가, 애초에 너를 납치해서 감금할 리가 없잖아. 뭐, 너를 위한 운동장은 준비되어 있지만. 방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말이야. 봄이 되면 꽃 구경을 간다던가, 가을이 되면 단풍 구경을 간다던가…… 그런 이벤트는 제대로 준비할 테니까.

【히로인 「남자친구가 신고해서, 경찰이 나를 찾기 시작할 거야」】

스구루: 【멍하니】 에? 경찰? 【여기서부터 웃음을 참으며】 남자친구……? 후……후후…… 아하, 아하하하하하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걸 기대하고 있던 건가. 그렇구나. 아니, 미안 미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네. 너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사이가 가까운 누군가가 찾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스구루, 히로인이 앉아있는 침대에 앉는다】

SE: 다가오는 발소리

SE: 침대에 앉는다

【1 본성을 숨긴 듯한 간사한 목소리】

스구루: 그렇지만 말이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너를 찾아주지 않아. 왜 그렇다고 생각해?

【경계하며 스구루를 바라보는 히로인에게 귓속말하는 스구루】

【1 → 3 컷가에 속삭인다】

스구루: 실은 있지, 너는, 이미, 죽었어.

【히로인, 겁에 질려 확 물러선다】

SE: 물러서며 옷이 스치는 소리

SE: 침대의 삐걱거림

스구루: 너는 내일 밤, 그 쓸모없는 남자와 함께, 차로 바다에 빠지는 거야. 원인은, 그 녀석의 음주운전일까. 그리고 수일 후에 차와 시체가 발견되어, 너는 이 사회로부터 사라지게 되지.

스구루: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런 영화에나 나올 만한 일…… 이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되더라. 실제로 해본 적도 있어. 사회에 있어 너는, 그 정도로 작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존재인 거야. 나 이외에게 있어서는 말이야, 응?

【스구루, 떨고 있는 히로인을 잠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 환하게 웃

기 시작한다】

【1】

스구루: 후, 후후…… 아하하! 농담이야! 놀랐지? 그렇게 떨지 않아도 괜찮아. 물론, 정말로 죽이겠다는 건 아니야. 그저, 호적상으로는 죽은 걸로 되는 것뿐.

스구루: 이렇게 하는 편이, 너에게 있어서도 좋아. 그거야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나 돌아오지 않을 너를 걱정할 인간이 없어지잖아. 네 집안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정리가 될 테니까.

【히로인 「카나야마 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스구루, 카나야마가 언급되어, 기분이 언짢아진다】

【1】

스구루: 카나야마……?

【다른 쪽을 바라보며】

스구루: 그 녀석이 어떻게 되던지는, 너에게 더 이상 상관없잖아. 내일이면 벌써 죽은 목숨일 남자에 관한 것 따위는, 화제로 삼는 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히로인 「죽은 목숨일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

【히로인을 보며】

스구루: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줬잖아? 너는 음주운전으로 바다에 처박힌 카나야마의 길 착각으로 죽는 게 되는 거야. 네 시체는 가짜를 준비해둘 거지만, 카나야마의 시체는 진짜를 쓸 거고.

【히로인 「어째서 그런 짓을……!」】

스구루: 【짜증이 나서】 당연한 일이지……! 내가 그 새끼를 용서할 리가 없잖아. 그놈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평범하게 만날 수 있었어. 평범하게 만나서, 연인 사이가 되어서,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결혼할 수 있었어! 너도 너야! 조금 떠밀린 정도로, 간단히 저런 남자에게 걸리다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사람 좋고……그런 점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탓에 나 이외의 남자의 연인이 되다니……!

【히로인, 필사적으로 카나야마의 목숨을 구걸한다】

【1】

스구루: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런 놈의 목숨 구걸이라니 듣고 싶지 않아! 어째서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 녀석은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 너는 졸곧, 그 녀석한테 바보 취급당하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어째서……!

【히로인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쁜 짓은 한 적 없어」】

스구루: 【어둑게】 아……. 그래. 어떻게서든, 그 녀석을 구해주고 싶은 거구나.

【히로인, 고개를 끄덕인다】

SE: 고개를 끄덕이며 옷이 스치는 소리

스구루: 하……. 좋아, 알겠어. 찬스 정도는 주어도 괜찮겠지. 그렇지만, 제대로 훌륭하게 조른다면 말이야.

【히로인 「조른다니?」】

스구루: 【본성을 숨긴 간사한 목소리로】 그래, 조르는 거야. 귀여운 네가 전심전력으로 조르기만 해준다면, 그 녀석의 목소리를 듣게 해줄게. ……생명? 음-, 그렇지……. 그다지 내키진 않지만, 네 노력에 따라서 생각해볼게. (티무니없는 거짓말)

【3 컷가】

스구루: 어쩔래? 할래?

【히로인, 고개를 끄덕인다】

【1 불쾌함】

스구루: 너, 정말 그 녀석을 좋아하는구나. 【내뱉듯이】 어떻게 됐구나, 정말로…… 뭐 됐어, 자, 시작해봐.

【히로인,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어 꾸물댄다】

스구루: 【재미있다는 듯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역시, 마음이 바뀌었어? 그런 남자를 위해, 납치범이자 강간범인 나에게 귀엽게 아양을 부린다니, 너에게는 무리겠지. 괜찮아, 별로. 무리하지 않아도 돼.

【히로인, 다음 대사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키스해 온다】

스구루: 그 어쩔 도리도 없는 남자 재빨리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나에게 있어서

도 도움이 되는- 으응…… ! ?

SE: 옷이 스치는 소리

SE: 히로인의 체중이 이동하여 침대가 삐걱거린다

【1 근거리】

스구루: **【키스하면서】** 으응…… 키스해주는 거야? 하하, 귀엽네…… 좋아, 좀 더 쉼- 해줘. 그 녀석에게 해줬던 것보다, 더 농후한 걸로. 아-음……

【답키스 15초 정도】

【1 근거리】

스구루: 아아, 잘하네…… 부드러운 혀가, 매우 열심히 움직여서…… 하아, 위험해, 참을 수 없어질지도…… 부탁할게, 좀 더 해줘. 잔뜩 내 입 안을, 범해줘.

【답키스 30초 정도】

【히로인으로부터 농후한 키스를 받아, 폭신평신했고, 황홀한 기분이 된 스구루】

스구루: 아~…… 나, 행복해서 어떻게 돼버릴 것 같아…… 있지, 이거 외에는 그 녀석한테 뭐 해줬어?

【7 컷가에】

스구루: **【응석을 부리는 듯이】** 알려줘, 네가 그 녀석에게 해줬던 거, 전부 나에게도 해줬으면 좋겠어. **【협박하듯이】** 설마 키스뿐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

【히로인, 마지못해 스구루의 바지를 느슨하게 한다】

SE: 바스락바스락

【8 밑을 바라보며 ※초짜 동정이라 금방 기분 좋게 됩니다】

스구루: 흐음. 거기, 만져주는구나. **【음경을 만져지게 되고】** 웃, 아아…… 네 손가락, 엄청, 기분 좋아……

SE: 위아래로 훑는다

【히로인, 수음해주며 「아파?」】

【1】

스구루: 으응, 아프지 않아…… 조금 더 강하게 해도 괜찮아. 아아, 응, 엄청 좋아…… 앓, 더 해줘, 더…… 앓

【히로인, 수음을 해주면서 펠라】

SE: 펠라치오 물소리

스구루: 우앗…… 그거, 위험해……! 아, 아아…… 대단해…… 손과 입으로 동시에 당하면, 기분 좋아……! 이런 짓, 그 녀석에도 해줬던 거구나? 정말, 질투나네…… 이제부터는, 나뿐이니까……! 이런 일, 너에게 받을 수 있는 거…… 나뿐이니까…… 웃

스구루: 있지, 말해. 『앞으로 저는, 스구루군과 하는 게 아니라면 야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SE: 펠라&수음 스톱

SE: 히로인이 고개를 들며 웃이 스치는 소리

【히로인, 바라고 있는 대사를 말하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1】

스구루: 【조금 풀이 죽어서】……무슨 일이야? 굳어버리고. 설마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조르는 건 끝내는 걸로 할래? 나는 별로, 그래도 상관없는데 말이야. 특별히 말로 해주지 않는다 해도, 네가 이제, 나하고만 야한 짓 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히로인이 카나야마를 위해 아양 떠는 걸 그만뒀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스구루】

스구루: 그런 빌어먹을 놈을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걸, 네가 드디어 깨달아준 거네. 숨통을 끊기 전에, 말해줘야겠다. 네 녀석의 전 연인은, 이제 너 따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졌다고!

【히로인, 황급히 카나야마의 목숨을 구걸한다】

스구루: 【부루통하게】에에…… ? 아 그래. 결국, 그 녀석의 목숨을 구걸하는 거, 계속하는구나. 뭐, 좋아. 조금 기력이 빠져버렸지만…… 그럼, 들려주도록 할까? 나를 따라서 반복해야 해. 자, 이쪽 봐. 웃어, 웃어~

SE: 스마트폰으로 녹화 시작

【한 마디 한 마디 끊어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스구루: 『저는』『앞으로』『평생』『스구루군하고만』『야한 짓 하겠습니다』

SE: 녹화 종료

【1】

스구루: 【아이를 칭찬하듯이】 착하다 착해! 분명하게 말했네. 아, 아까랑 조금 다른 거, 눈치챘어? 괜찮잖아, 이편이 나는 좋아.

스구루: 이거? 녹화. 모처럼이니까,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나중에 편집해서, 내 목소리는 지울 거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을 거니까. 당연하지, 이건 나만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스구루: 그것보다, 다음은 안 해주는 거야? 아까처럼, 네 귀여운 입으로, 내 거 빨아줘. 좋잖아, 다시 한번!

【펠라 재개】

SE: 펠라치오 물소리

【1 위에서】

스구루: 앓…… 기분 좋아…… 우음, 응… 역시 좋네…… 굉장히 열심히, 내 걸 입에 한가득 볼이 터질 듯이 물고…… 하하, 귀-여워. 부드럽고 따듯해서…… 하아, 엄청나……

【한숨만 잠깐. 초 수는 맡기겠으니, 좋은 타이밍에 다음 대사로】

스구루: 위험해… 있지, 이제 내보내도 돼? 내보내도 되는 거지? 미안, 많이 나올 지도 모르지만…… 웃 아, 아아……!

【사정】

SE: 히로인이 입을 떼는 물소리

【1】

스구루: 아-, 입 안에 내보내 버렸네. 좀 더 즐기고 싶었지만…… 있지, 입을 벌리고 보여줘. 아아, 대단하네. 네 입속, 내가 내보낸 걸로 질척질척해.

스구루: 자아, 이번에는 입을 닫아줘. 네, 그대로, 꿀꺽……

【히로인, 애를 쓰며 마신다】

스구루: 하하, 마셔버렸다. 맛없었지, 목, 기분 나빠? 미안해, 지금 물 마시게 해 줄게. 입으로 옮겨서, 자. 【컵을 손에 들고, 입으로 옮긴다】 응…… 으음……

【10초 정도, 입을 통해 물을 먹게 한다】

【칭찬】

스구루: 네, 잘 마셨어요. 좀 더 마실래? 이제 됐어? 그렇구나.

SE: 머리를 쓰다듬는 SE

【스구루, 히로인의 머리를 옮지 옮지 쓰다듬는다】

스구루: 옮지 옮지, 노력해줘서 고마워♡ 너무나도 귀여웠어. 자아, 약속한 대로, 너에게 찬스를 줘야겠네. 네가 남자친구를 구할 수 있는 찬스를, 말이야.

스구루: 잠깐만 기다려줘. 지금부터 전화를 걸 테니까.

【히로인 「전화?」】

【1】

스구루: 그래, 네가 그 녀석이랑 전화로 이야기해서, 그 녀석에게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걸 나에게도 알게 해줘. 그러면, 해방까지는 해주지 않겠지만, 자질구레한 일을 시킬 용도로 살려두고 부리는 것 정도는 가능할지도 몰라.

【히로인 「하지만, 그런 걸 어떻게…」】

스구루: 글썸…… 방법은 너에게 맡기도록 할게. 그렇지만, 뭐 나도 그렇게까지 귀찮은 건 아니니까. 저 녀석이 자신보다 네 걱정을 한다던가, 그 정도로 의 일로 양심이 깨어날지도.

스구루: 그러니까, 전화하는 동안은 여기 앉아. 내 다리 사이. 너와 그 녀석의 대화가, 제대로 전부 들릴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카나야마에게 발신】

SE: 스마트폰을 손가락으로 두드린다

SE: 발신

트랙 5

트랙 4와 연결.

카나야마와의 통화 중, 가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 카나야마를 살려주겠다고 히로인에게 말을 거는 타카츠키 스구루.

그러나 카나야마는 「스구루가 기분 좋게 되면, 나는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어, 전화 너머로 쾌락을 견디고 있는 히로인에게 「빨리 가버리라고」라며 재촉한다.

SE: 발신음

【스구루, 히로인을 등 뒤에서 꼼짝 못 하게 껴안으면서, 전화 앞에 있는 부하에게 상황을 알린다】

【6 전화기의 걸】

스구루: 아아, 여보세요. 그쪽 상태는 어떤 느낌이야? 아직 죽이진 않았지? 그렇구나, 다행이네. 아니, 여자친구가 그 녀석이란 조금 얘기하고 싶다는 것 같아서. 기절……? 물이든 뭐든 뿌려서, 눈을 뜨게 만들면 되잖아, 그런 거. 그것보다, 내가 없는 사이에 쓸데없는 짓 안 했지? 알고 있지? 그 녀석의 시체는 확실하게 사용할 거니까, 부자연스러운 골절 같은 게 있으면, 사정이 나빠져. 응…… 응…… 자, 그럼 그녀에게 바꿔줄게.

【6 히로인을 바라보며】

스구루: 네, 여기. 자아, 힘껏 노력해봐♡

【히로인이 스마트폰을 받아 들고, 왼쪽 귀에 댄다】

【3】

카나야마 【괴로운 듯한 호흡을 10초 정도】

※ 카나야마, 항상 통증으로 짜증이 나 있으세요

【카나야마, 「전화 받아」라고 밖에 듣지 못하고 전화를 받은 거라,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다】

【3】

카나야마: 누…… 누구세요?

【히로인 「아키라니?」】

【카나야마, 통화 상대가 히로인이라는 걸 깨달자, 다소 안심한다】

카나야마: 뭐, 뭐야…… 너야?

【히로인 「괜찮아?」】

카나야마: 괜찮을 리가 없잖아……! 뭐냐고, 이거……! 어쩌서 내가 이런 꼴을……! 빌어먹을, 이쪽저쪽 다 아파……

【히로인 「뭔가 끔찍한 일 당했어?」】

카나야마: 하? 끔찍한 일……? 뭘 미적지근한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살해당할 뻔했다고! 그런데, 뭐야 너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전부 네 탓인데 말이야!

【히로인 「진정하고, 이야기를 들어줘」】

카나야마: 진정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런 상황에! 그거야 너는 진정할 수 있겠지. 너는 “끔찍한 일” 같은 거, 아무것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3】

카나야마: 【갑자기 매달리듯이】 있지, 그 사람한테 설명 좀 해줘. 나는 사실, 네 남자친구 같은 게 아니라고……!

카나야마: 나랑 너는, 그냥 친구였어. 그렇지? 수상한 남자한테 얽혀있다고 생각해서, 일순 남자친구인 척했던 것뿐이야. 그 녀석은 너랑 사귀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는 정신이상자야. 네가 귀엽게 조르다 보면, 분명히 나에 대한 건 어찌 되든 상관없어질 거야……! 그치? 부탁할게. 부탁할 테니까……!

【6】

스구루: 아-아…… 전혀 안 되겠네. 살릴 가치 제로.

【히로인, 황급히 수화기의 스피커 부분을 막고, 「지금은 조금 흥분해있는 것뿐이니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청한다】

스구루: 에……? 아직도 노력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나. 나, 조금 질려버렸는데. 그렇게…… 조금, 장난쳐도 괜찮아? 그렇게 하게 해준다면, 좀 더 희극에 어울려 줄게.

【7 소곤소곤거리며】

스구루: 【귀에 바람을 불어넣으며】 후후…… 왜 그래? 봐, 힘내서 남자친구군은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 나에게 납득을 시켜줘야지. 아-음…… 【여기서부터 귀 핥기】

【7 귀를 핥으며】

스구루: 포기하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전화, 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스구루, 귀 핥기만 30초 정도】

【3】

카나야마: 어이, 왜 갑자기 입을 다문 거야……! 화난 거야? 있지, 나를, 버리지 말아줘? 뭐라도 말해달라고……! 나를 구해줄 거라고, 말해달라고……! 죽고 싶지 않아, 부탁해, 죽고 싶지 않아……

【카나야마, 흐느껴 울기만 30초 정도】

【7】

스구루: 응-? 꽤 목소리가, 변하질 않네. 설마, 귀를 핥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좋아. 자아, 밑에도 만져줄게.

SE: 만지는 물소리

SE: 충분히 끈적끈적하다

스구루: 하하, 질척질척하네.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눈치채는 게 늦어서 미안♡ 있지. 그 녀석 울면서 목숨 구걸하는 것뿐이라, 재미가 없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없나 봐. 눈치채게 만들어주자. 네가 나한테 강간당하면서, 너를 필사적으로 구하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야! 【후면좌위로 안쪽까지 삽입】

【7】

스구루: 아, 하…… 기분 좋아…… 네 안, 벌써 녹진녹진해. 귀엽네♡ 야하네♡ 정말 좋아해, 정말 좋아……♡

SE: 피스톤 (충분히 끈적끈적)

【스구루, 조심스러운 숨결만, 1분 정도】

【3 의아한 모습】

카나야마: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너…… 설마,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카나야마, 자신이 플레이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걸로 스구루가 기분이 좋아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텐션이 올라간다】

카나야마: 잘됐다……!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마음껏 서비스해주도록 해. 목소리도 억누르지 않아도 돼.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느끼는 척을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하니까, 할 수 있지?

카나야마: 그래그래, 그 기세로. 알까, 너…… 【조소】 진짜로 느끼고 있는 거야?

【3】

카나야마: 목소리도 억누르지 못하고 있고, 통화로도 엄청나게 젖어 들었다는 걸 알겠어. 그렇구나…… 나 때보다, 기분 좋은 거구나. 아니, 좋아, 그걸로 됐어. 나는 이제, 너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카나야마: 너도, 그 녀석을 좋아하게 되는 편이, 여러 가지로 이득이잖아? 부자인 것 같은 데다가, 얼굴도 잘생겼어. 하는 중간에 남자가 기뻐할 만한 대사라면, 내가 알려줬었지? 자, 말하라고……! 기분 좋아, 사랑해, 라고 말해주라고……!

【스구루, 카나야마가 기세를 타고 히로인에게 지시하자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6 불쾌함】

스구루: …… 말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자, 스마트폰 이리 쥐봐. 통화는 계속 이어가게 하고, 그쪽에 두면 돼.

SE: 스마트폰을 빼앗는다

SE: 침대에 스마트폰을 핵

스구루: 있지, 정말 이 남자를 좋아했던 거야? 자기 연인이 범해지고 있다는데, 처신하는데 필사적인, 이런 남자를?

【히로인, 울기 시작한다】

【당황하여 달란다】

스구루: 아아, 미안해. 책망하는 게 아니야. 골라야 할 상대를 잘못 선택하는 일 같은 건 평범하게 있는 일이고… 괜찮아. 자, 울지 마. 내가 더 기분 좋게 만들어 줄 테니까.

SE: 피스톤 가속

스구루: 하아, 하아…… 하하, 엄청난 소리. 이렇게 야한 소리가 나다니, 이제 목 소리를 억누른대도 의미가 없네. ……웃, 안쪽, 빠듯해졌어. 전 남자친구에게 들려주면서 범해지는 거, 기분 좋구나? 하하, 다행이다. 너, 음란하네.

【히로인, 부정한다】

스구루: 아냐? 그래? 그럼, 이대로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 --맞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7 있는 힘껏 목소리를 낮추고】

스구루: 네가 이대로 가지 않고 참는다면, 저 녀석을, 죽이지 않고 놓아줄까나. 어떻게 할래? 해볼래? 하하, 자신 없어? 귀여워 (웃음)

스구루: 그래도, 저걸 도와주려면 도전하는 길밖에 없어.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만족한다면, 네 승리. 그 녀석도 살려줄 거고, 너도 해방 시켜줄게. 나에게 범해져도, 기분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지? 정말 그 녀석을 좋아한다면, 참을 수 있겠지?

【6 보통의 성량으로】

스구루: 좋-아, 그럼…… 힘내♡ 힘내♡ 봐, 봐. 안쪽, 쿵, 쿵, 쿵, 쿵 해서. 이-봐, 안된다고. 허리 달아나면. 나를 빨리 가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허리를 흔드는 정도는 해야지.

SE: 피스톤 가속

SE: 물소리

【스구루, 숨소리만 30초 정도】

【히로인, 금방이라도 갈 것 같아서 「싫어」와 「그만해」를 반복한다】

【6】

스구루: 싫어? 그만뒤졌으면 좋겠어? 어째서? 설마 갈 것 같아? 아아…… 그 녀석, 아까부터, 스마트폰 저편에서 짹짹 말하고 있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

【스구루, 침대 옆 테이블에 둔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다】

【6→4 11을 보면서】

스구루: 스피커로 해줄 테니까, 들어보도록 해.

SE: 스피커 온

【카나야마, 히로인이 굴복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1 1 침대 옆 테이블의 스마트폰에서】

카나야마: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뭐가 “싫어, 그만해”냐고……! 네 그런 새침데기 행세하는 점, 진짜로 시든다고 말했잖아! 듣고 있는 거냐, 이 망할 바보 여자야! 있지, 부탁할게. 듣고 있지? 응? 듣고 있잖아? 어이, 가게 해주하고. 알고 있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4】

스구루: 【조소】 핫……! 그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됐잖아? 아까부터 계속, 싫어 싫어 말하면서도, 이렇게나 조여들고, 사실은 그 녀석 같은 건, 이제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거야. 그저, 여기서 그를 버린다면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고집이 생겨서 나를 거부하고 있을 뿐.

【4】

스구루: 【부드럽게 타이른다】 그렇지만, 괜찮아. 이제 너는, 두 번 다시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너를 사랑하는 나와, 줄곧 줄곧, 단둘뿐이야.

스구루: 여기에는 아무도, 너를 비난할 사람 같은 건 없고, 그를 내버려 둔 일도 몰라. 응? 나랑 함께, 나쁜 아이가 되어버리자.

스구루: 참는 거, 이제 슬슬 한계지? 있지, 가버리자? 있는 힘껏 기분 좋은 소리 내지르고, 그를 안심시켜주면 돼.

【부드럽게 → 명령 어조】

스구루: 자, 가버려. 봐, 가라고! 가, 가버려!

【히로인 절정】

스구루: 【피니쉬 숨결】

SE: 피스톤 종료

【4】

스구루: ……하, 하, 하하하! 아-아, 가버렸다. 아까웠네. 네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녀석은 살 수 있었을 텐데.

【11 그 근처에 놓여있던 스마트폰으로부터】

카나야마: 하……? 뭐,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스구루, 전화 저편의 부하에게 지시를 날린다】

【4 11을 향해】

스구루: 어이, 들리나? 그 녀석은, 이제 됐어. 그쪽에서 처리해.

【1 1】

카나야마: 기다려줘! 싫어! 싫다고, 죽고 싶지 않아! 살려줘, 살려줘……!

SE: 통화종료

【4 울기 시작한 히로인을 돌아보며】

스구루: …… 그렇게, 울지 말아줘. 그 녀석, 제대로 아프지 않게 죽도록 해줄게. 나로서는 마음 내키진 않지만…

스구루: 【상냥하게 타이르며】 그걸로 네 기분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참을 수 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한숨 자는 게 좋겠어. 다음에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든 괜찮아질 거야. 자, 잘 자. 내 운명의 사람♡ 【3 귀에 키스】

트랙 6

수일 뒤. 히로인을 약으로 아무것도 모르게 만든 스구루. 인형처럼 되어버린 히로인에게, 상냥하고, 온화하게, 일방적으로 말을 건다.

SE: 문 너머에서 발소리

SE: 잠금을 연다

SE: 문 개폐

【10 방 안의 히로인에게 말을 건다】

스구루: 다녀왔어……. 어때? 오늘 하루도, 좋은 아이로 있었어?

SE: 히로인이 자고 있는 엄청나게 큰 침대에 앉는다

【2】

스구루: 【자조하는 기미로】라니……. 그리고 있었던 게 당연하지. 지금도 전혀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있고, 계속 자고 있던 거지? 옳지 옳지, 약도 잘 먹을 줄 알고 대단하네. 의사 선생님이 빈틈없이 네 상태를 봐주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1】

스구루: 평생, 꿈을 꾸는 듯한 기분으로, 내 사랑만을 받으며 살게 해줄게. 가족에 대한 것도, 친구에 대한 것도,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것도, 전-부,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너도, 이러한 편이 좋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슬퍼할 일도 괴로워할 일도 없으니까. 기분 좋은 것만 느끼고, 매일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지내자.

스구루: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줄까……. 우리 집에 있는 건, 대부분 이미 읽어버렸네. 내일은 잔뜩 주문해둘 테니까, 용서해줘요 공주님. 【이마에 키스】

【대답은 없다】

스구루: ……하핫, 이제 너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버렸는데, 나는 어째서,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걸게 되는 걸까? ……있지, 너는 이런 걸 납득할 수 없겠지만, 우선 나도 제대로, 할 말이 있어.

스구루: 【온화하게】그래, 오늘은 내 가족 이야기를 해줄게. 너도 조만간 소개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마침 딱 좋겠네.

스구루: 나에게서는 말이야, 형이랑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는, 나를 낳고서 금방 돌아가셨어. 왜냐고? 우리 일족은 있지, 너도나도 머리가 이상해. 상대가 자신의 유일한 상대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지. 몸

도, 마음도. 어머니는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있지.

스구루: 아버지도 꽤 마음 아파하셨지만, 정말 불쌍한 건 어머니야.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유괴당해, 강간당하고. 우리를 낳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 이 세상에서 빨리 퇴장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스구루: 그렇지만 말이야, 상대의 행복을 생각하고 물러서는 걸, 아버지는 할 수 없었어. 나도 그래. 너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서라도, 내 행복을 바랐어.

스구루: 상대의 의지 같은 건, 관계없어. 불쌍한 운명의 사람을 잘 붙잡아 둘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견실하게, 돈을 벌어놓는 거야. 덕분에…… 【푸흡】 봐, 이제 너는 도망갈 수 없지.

【혼잣말처럼】

스구루: ……알고 있었어.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억지로 감금해봤자,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나는, 나만은, 운명의 사람과 둘이서 행복해지자고, 결심했었는데. 【지침】 정말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초취】

스구루: 미안해, 적어도 네가 계속 꿈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제대로 약을 먹여주도록 할게. 너는 졸-곧, 졸-곧, 이대로 있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돼. 여기에 있어만 준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스구루: 그러니까 계속,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응? 【입술에 키스】